

## 1. 정\*현 (미국 패션산업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2기 수료)

: S\*\*\*\*\* L\*\*\* Inc. d\*\* S\*\* Y\*\* M\*\*\*\*\* / Fashion designer asst. 취업 1년 근무 후 정규직 VISA 신청

### Q: K-Move 스쿨을 지원하게 된 동기

A: ICN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학교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여러 동기의 경험과 추천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워킹 홀리데이와 달리 자신의 전공에 맞는 업무와 해외에서 살아 볼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지원을 하게 되었다.

### Q: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 근무를 했던 회사는 YOUNG 한 여성의 옷을 디자인하는 패션회사로 디자인팀, 프로덕션팀, 세일즈팀, SHIPPING 팀, 있었고 3-4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속한 업무는 디자인팀에서 HEAD DESIGNER의 어시를 하며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많은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다. 12월에는 베가스에 있는 MAGIC SHOW를 통해 미국 패션시장을 더욱 넓게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 Q: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A: 해외취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살아봄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 느낀 점은 본인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아 남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남들과 비슷한 삶보다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해외 취업을 추천한다.

### Q: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A: 미국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주는 TIP은 시간에 쫓겨 아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비추천한다. 처음 LA에서 취직한 회사는 저의 업무에 맞지 않은 일과 여러모로 어려움을 준 회사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다행히도 옮긴 회사는 좋은 직원들과 업무를 가지게 되어 배울 것도 많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WORKING VISA를 준비하고 있다. 머나먼 미국 땅에 적지 않은 돈과 좋은 경험을 하러 가는 것인데 잘못 만난 회사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정말로 궁금한 사항들을 다 물어보고 어떤 느낌의 회사인지 최대한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비자 받고 들어오기 힘들다고 주위에서 말이 많지만 실제로 LA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면 면접을 많이 떨어져도 잘 왔던 친구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애초부터 걱정을 너무 하지 않고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김\*솔 (미국 패션산업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3기 수료)

: R\*\*\*\*\* FASHION D\*\* H\*\*\*\*\* L\*\* A\*\*\*\*\* / E-COMMERCE ASSISTANT 취업 1년 근무 후 귀국

### Q: K-Move 스쿨을 지원하게 된 동기

A: 취업지원팀에서 문자를 받아 ICN을 알게 되었다.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그렇기에 항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해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 J1 인턴십이 기회라고 느껴져서 취업지원팀에서 온 문자를 보자마자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렸을 때 꿈이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미국 J1 인턴십을 주저없이 선택했다. 또한, 이 기회가 나만의 장벽을 깨고 좀 더 넓은 시각과 관점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인종 국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재미를 느끼고 싶었다. 미국에서 일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영어실력이지만 7개월 동안의 영어수업을 받고 직접 부딪혀보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Q: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 회사는 Los Angeles에 기반하고 있는 홈세일 회사로 Womens, kids, plus 사이즈의 옷을 다루며 세련된 스타일과 보헤미안 스타일의 옷을 만든다. 특히 kids 옷이 유명하며 kids 사이즈는 리테일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주 업무는 메인 사이트와 더불어 다른 홈 세일 홈페이지에 새로운 상품을 올리고, 잘 나가는 혹은 잘 나갈 것 같은 옷들로 상품의 배열을 정렬하고 정리한다. 새로운 상품을 올릴 때는 그 상품의 상품명과 디테일 한 설명, 가격, 무게, 모델 사이즈, 소재 등 최대한의 정보를 입력한다. 필요 시 photoshop이나 lightroom을 이용해 상품의 사진을 수정도 하고 있다.



[Magic Show -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홈세일 쇼에 참여]

**Q: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A: 인턴 생활 5개월 동안 느낀 점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티비로 혹은 책으로만 봤던 그들의 문화를 직접 보고 직접 느끼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평등하게 일하고 대우받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인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평등하게 대해주고 업무에 있어서도 차별없이 분배받아 일하고 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해외 취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Q: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A: 영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드라마나 영화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배우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나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머리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실제로 접했을 때 이해가지 않았던 문화들이 몇 개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문화가 있듯이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성실함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끈기있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강\*주 (미국 패션산업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3기 수료)**

: T\*\*\*\*\* A\*\*\*\*\* S\*\*\* Inc./ Graphic Design 취업 1년 근무 후 귀국

**Q: K-Move 스쿨을 지원하게 된 동기**

A: 처음 ICN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해외취업 관련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다. 학기중 학교에서 해외취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관련 정보를 얻게 되었고 고민을 시작했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서 입사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턴으로 시작하게 될텐데 기왕 똑같이 인턴생활을 하려면 해외로 나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Q: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 3개 회사가 모여서 하나의 회사로 되어있다. 하나는 모자를 디자인하고 다른 곳은 의류디자인 그리고 마지막 회사는 두 회사에서 나온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구조이다. 의류 쪽 소속 회사이지만 다 같은 회사라 모자도 디자인하고 의류에 들어갈 그래픽도 제작하고 있다. 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 올라갈

포스터나 배너 제작과 상품 포토슈팅도 같이 하고 있다. 글로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회사에서 시간내에 할 수 있는 업무만 딱 주고 그 이상으로 일이 많아도 퇴근시간은 칼같이 지켜준다. 오히려 남아서 일하려 하면 퇴근하라고 떠밀면서 남은 일은 다음에 하라고 한다. 그래서 4:30 이면 퇴근하고 나오니 사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오후의 개인시간이 있어 아주 마음에 든다.



**Q: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A: 어디를 가던지 처음은 항상 어색하고 어려운 법. 본인의 노력으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20 대의 인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단순히 여행으로 만나는 미국과 현지인으로서의 미국은 분명 다른 느낌이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분명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Q: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A: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가짐이다. 어디를 가던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베스트로는 못해도 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는 많이 할수록 더 좋을것 같다. 들리는만큼 느끼고 아는만큼 더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꼭! 가게 되면 가서 뭘 할지, 뭘 하고 싶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길 바란다.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일상에 취해서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시간을 놓칠지도 모르니까